

# 좌담 (영상시대의 불교)

KBS·MBC·SBS 불자회장에 듣는다

◆ 불자회 활동이 불교신행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요

정종철(KBS): 회원구성 및 근무여건이 여타 언론사와 달리 너무 다양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각자의 근기가 다르고, 24시간 방송을 위한 4조3교대 근무 환경, 근무장소도 산재되어 있으며, 직종도 다양하여 한자리에 모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불자회 집행단은 부단히 타 불자회 및 타종교계 신행단체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사불자회 연합회" 결성을 추진하여 불자회가 미 결성된 언론사에 불자회 결성을 유도 촉구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타사 불자회와 맞차레 준비모임 등도 진행 중입니다.

황진욱(MBC): 연구회 회원들의 각자 성향이나 길이는 다르겠지만 1박2일의 명찰순례 법회나, 삼목법회, 불교서적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불교신행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명찰순례법회에서는 큰스님의 말씀을 통해 느슨한 마음을 조이고 삶의 곁피를 찾고 있지만 스님들과 같이 그날 스케줄을 함께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제(SBS): 활동은 미약하지만 방송인들에게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여,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감로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인의 불구적인 근무여건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불자회 활동이 바른 방송문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정: 불자회 활동이 점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유로 KBS를 찾는 스님에게 불자회 회원들은 본인과의 관계가 없더라도 예의를 갖추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종단과 관계가 있는 사건 사고에 종단에 누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며, 불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기본요건은 시대의 변화여건에 맞춰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황을 끌고오기 위해서 가려온 것을 풀어 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불자들은 사회의 등불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송사내에서 참다운 비판정신을 갖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정신인 존재의 참다운 진리를 구하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 상호 경쟁하며 분열하고 싸우며 불행한 중생적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의 큰 가르침의 뜻을 방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 SBS는 종교방송이 아니어서 종교

방송을 제작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자 방송인들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시켜서 사회를 맑게 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간혹 각각의 종교에 대한 편파방송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불교계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 지상파방송은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종교를 정규프로 제작은 거의 없으나,

황: 종교를 전드리는 모습으로 보면, 타종교는 능동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이에 비해 불교는 내면적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있지요. 연령층으로는 타종교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고, 불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방송인들은 타종교인들의 숫자가 많죠. MBC동호회의 경우 기독교 모임이 52명, 천주교 모임이 67명, 불교모임은 70명입니다. 그렇다해도 방송인들 사이에 종교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편파

21세기는 영상의 시대이다. 불교는 영상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영상을 다루고 이해해야 할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KBS, MBC, SBS방송 3사 불자회 회장에게 들었다. <편집자 주>



◁ 황진욱(MBC 불교연구회장)



◁ 정종철(KBS 불교연구회장)



◁ 허원제(SBS 법우회장)

## 불교 고유콘텐츠 개발 영상화해야

### 사회 등불역에 초점 프로 제작 불교문화재 가치 알리기 급선무

드라마 등 일반프로 중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간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단차원의 방송작가 세미나, 포럼 개최 또는 토크쇼에 사업으로 불교의 참된 모습을 알리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기사는 화합된 종단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대부분 사건 발생이 방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외의 경우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관계자들의 이해와 함께 불교의 위치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회원 각자의 위치에서 소책자나 건 등에 대해 적기에 종단에 승적이 없다는 사실자료를 제시하여 사대악화를 조기수습한 적이 있지요.

방송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쪽에서 방송사에 홍보 등을 통해, 소재를 제공하고 큰 행사에 초청하는 등 방송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불교적인 소재도 더 많이 방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 방송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오늘날 방송의 공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성장하는 기독교의 경우는 서구식의 합리주의 문화와 결합하여 영화, 드라마, 문화행사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타종교가 전파를 많이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계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있는 문화 창조를 위해 자연환경 지키

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정계유 지키기 등의 좋은 사례의 모범을 보이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영상물 주제로서의 불교는 얼마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가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 불교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의 보고이며, 동아시아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전통을 훌륭히 유지 계승하고 있으므로 영상물 주제로서 충분한 가치를 보유하고

리로 제작된 수준급의 프로그램도 나왔지만 좋은 기획, 많은 시간, 노력을 투입한다면 더 훌륭한 작품이 생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송 뿐만 아니라 영화로 혹은 비디오로 제작해 그 가치를 충분히 이끌어 낼 리 아닐까 싶습니다.

허: 불교 영상물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80~90%가 불교유물과 유적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사장되어가고

### 언론사 불자연합회 결성 추진 타종교와 연계 봉사활동 폼으면

있습니다. 불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고충을 거쳐 완벽한 영상물로 제작 보관해야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 등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 수요 및 언론사에 유무상으로 지속적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 불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는 다양하고 품위가 높습니다. 영상물 주제로 본다면 다방면에 여러가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없는 것, 잘 보존된 것, 훼손된 것, 후세에 길이길이 남겨야 할 값진 보물 등입니다. 이 수많은 문화재들을 영상물로 제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국가는 갖고 있지도 않은 독특한 영상물이 나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

리 시어는 도굴꾼들에 의해 도난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않게 일어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따라서 영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로 등록된 불교유산에 대한 그 고

유의 가치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면, 불교 관련 신문에서 불교유산에 대해 알기쉽게 분류하여 계속 홍보를 하고, 해당사항에서는 절을 찾는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사할 안내와 함께 문화재를 설명하는데 할애하면 자연스럽게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아지면서 불교 포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영상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방송화면에도 많이 사용되리라 봅니다.

덧붙여서 법문도 함께 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의 경우 월드컵 열기로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 오신날 관련 특집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듯 사회 현안과 맞물렸을 때 불교관련 특집들이 외면당하는 경우에 적당히 지 않기 위해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정: KBS의 경우 올해 부처님 오신날에도 10여편의 특집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물론 시의성 문제로 다른 특집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자들을 위한 특집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황: 올해 부처님 오신날 각 방송사 편성을 확인해 보면 MBC는 봉축법요식을 중계 각사로 본배했고, KBS1TV는 길위의 불자들, 영화 화엄경, EBS는 발우공양, 영화 석가모니 등을 방송했습니다. 크리스마스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월드컵 준비 관계로 약간 소홀해진 면이 있었지만 예년 수준에 비해 크게 약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 전야제 등에서 세계 각국으로 불교문화의 소개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대단한 일이지요. 불교계가 홍보전략을 이런 방향으로 세운다면 부처님 오신날 그 날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복된 점은 있지만 불교문화의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 추수와 불교,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불교 전파를 위한 큰 기회라고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교신자 개개인의 아이디어로는 큰 특집에 걸맞는 불교 행사를 진행하기는 무리라고 느낍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아이디어 또는 행사 공모를 통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불교 공익광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 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징**

- 1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에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 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 2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 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용결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 3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 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4 카타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셨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분회에서도 직접보여 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6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뼘씩 놔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보급가: ₩1,300,000(한푼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타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

##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언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산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